

## 火 및 火病의 意義에 관한 文獻的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실

박진성 · 류영수

### I. 緒 論

火란 五行中의 一部이며 自然界를 구성하는 5大 重要 物質의 하나로서, 上古以來 人類에게 이로움과 害惡을 同時에 끼쳐온 일종의 自然 現象이다<sup>1)</sup>. 한의학에서의 火는 人體內에서 穀氣 또는 元精을 消耗하여 精神的, 物質的 energy를 發하는 過程, 또는 이를 管掌하는 推進機能과 機能亢進된 狀態 또는 그 結果, 또는 이를 招來할 수 있는 原因이라고 定義하고 있으며<sup>2)</sup>, 陰陽五行의 運氣의인 意味外에도 生命 活動의 原動力이라 할 수 있는 生理的인 火와 함께 各種 病理的 機能이 過度하게 亢進된 病因·病理的인 火로서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다<sup>3)</sup>. 火에는 外火와 內火가 있어 外火는 熱邪에 의한 熱證을 말하고, 內火는 內部에서 發生하는 熱證을 말한다 하였다<sup>4)</sup>.

火의 特性은 炎上하여 매번 心神을 侵犯하여 病症을 야기한다 하였으며, 『素問·至眞要大論』<sup>5)</sup>에 “諸熱瘳瘳 皆屬於火”라 하여 病機十九條 가운데 9條를 火와 熱로 因한 病理로 表現하는 등 外火의 病理를 중요시 하였다<sup>6)</sup>.

또한 이같은 火로 因한 疾病을 火証이라 하기도 하였으며, 火証 가운데 五臟火가 가장 多發하는 편이며

五臟火는 五志之火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였 다<sup>7)</sup>. 朱<sup>8)</sup>는 “氣有餘便是火”라 하여 臟腑機能失調로 인한 肝鬱化火의 病理機轉을 강조하는 등 後代로 갈수록 外火보다는 內火의 比重이 중요시되는 추세이다<sup>9)</sup>.

한편, 火病이란 中國이나 日本에서 보다는 우리나라 民間 社會에서만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매우 獨特한 概念이며, 心因性疾患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火病에 대한 한의학적 概念을 살펴보면, 趙<sup>11)</sup>는 火病이란 주로 마음이 原因으로 작용하여 發生되는 心身症의 領域으로 看做하였고, 文 등<sup>12)</sup>은 火病은 七情 stress에 의해 發生되는 stress因子이며, stress의 結果라 말하였다. 그리고, 金<sup>13)</sup>은 일반인들의 火病과 한의학의 火는 概念 差異가 있다 하고 火病을 神病으로 보았고, 具<sup>14)</sup>는 火病이란 更年期 障礙와 類似하다고 하였다.

西洋醫學의 立場에서 火病에 대한 연구로, 金 등<sup>15)</sup>은 火病이 心理的 要因으로 발병하며 精神病과는 구분

1) 章眞如 : 風火痰癆論, p. 45.  
2) 鄭遇悅 : 韓方病理學, p. 85.  
3) 章眞如 : 風火痰癆論, pp. 45~46.  
4) 鄭遇悅 : 韓方病理學, p. 85.  
5) 洪元植 :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 499.  
6) 金琦顯·李泰浩 : ‘病機十九條’에 대한 考察, 東醫病理學會誌, p. 108.

7) 章眞如 : 風火痰癆論, p. 45, 46, 53, 63.  
8) 朱丹溪 : 丹溪心法附餘, p. 377.  
9) 章眞如 : 風火痰癆論, p. 53.  
10) 金珍泰 : 火病에 대한 東醫學의 考察,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p. 68, 79.  
11) 조흥건 : 스트레스病과 火病의 韓方治療, p. 95, 96.  
12) 문충모·김지혁·황희완 : Stress와 화에 대한 동서의학적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p. 158.  
13) 金珍泰 : 火病에 대한 東醫學의 考察,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p. 81.  
14) 具炳壽·李鐘馨 : 火病에 對한 文獻의 小考,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p. 1, 2.  
15) 김용식외 7名 : 농촌 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지식 및 견해, 神經精神醫學, p. 374.

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李<sup>16)</sup>는 火病을 “Anger syndrome”으로 局限시키며 火病의 力動的 形成 過程을 설명하였고, 閔<sup>17)</sup>은 火病은 所謂 韓國의 文化와 關聯된 精神醫學의 症候群(Culture-bound Syndrome)이라 하며 恨과의 關聯性을 말하였다. 또한 Lin<sup>18)</sup>은 火病을 憂鬱에 關聯된 症候群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火는 生理的 側面 뿐만아니라 病因·病理的 關聯性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臨床에서 活用되어져 왔다. 특히나 病理的인 面에서는 五臟火가 가장 중요시 되어 왔으며, 五臟火는 精神的 葛藤에 의한 五志之火의 影響으로 발생된다 하여 현대에 이르러서 火에 대한 精神的 側面的 比重을 높게 생각하여 왔다<sup>19)</sup>. 그러나, 最近의 傾向을 보면 火에 대한 生理的, 病理的 意味外에도 火病이라하는 病名으로서 通用되면서 火 및 火病의 概念이 混用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에 著者는 火 및 火病의 概念의 明確한 구분과 이해를 목적으로 火의 病因·病理論의 側面과 火病의 概念, 原因, 症狀, 病理 機轉을 調査,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一定한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資料調査 및 研究方法

內經以後의 火와 火証 및 火病이 記載된 70種의 東·西醫學的인 文獻을 中心으로 각각 意味하는 바를 調査, 研究한 結果, 火는 運氣의, 生理的, 病因·病理的인 意味로 사용되어져 왔고, 火証은 外火로 인한 疾病을 意味하였으며, 火病이란 精神的 葛藤에 의한 病理的 側面을 表現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醫家마다 火에 대한 概念 定義가 大를뵈더러 火病에 대해서도 東·西醫學的인 見解 差異가 多樣하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火病에 대한 資料中 李 등<sup>20)21)22)</sup>이 발표한 論文을 토대로 火病에 대한 東·西醫學的인

概念 差異를 究明하였으며, 火病의 原因 및 症狀에 대한 研究를 통해 火病의 發生機轉과 火病과 火証과의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이에 著者는 火에 대한 文獻的인 概念 調査와 함께 火의 病因病理機轉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특히, 中國 文獻에 보이는 火로 인한 疾病인 火証의 意味를 調査 하였다.

## III. 本 論

### 1. 火에 대한 考

#### (1) 火의 概念

火는 韓醫學에서 多方面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水爲陰 火爲陽”, “南方生熱 熱生火”라 하여 陰陽 五行論의인 火를 말하였고<sup>23)</sup>, 『素問·天元紀大論』의 “君火以明 相火以位”와 『素問·至眞要大論』의 “少陽司天 其化以火”와 『素問·五運行大論』의 “少陽相火 少陰君火” 등은 運氣의인 火를 說明하였다<sup>24)</sup>. 그래서 李 等<sup>25)</sup>은 火의 根源이 五運 六氣에서 天의 六氣인 風寒暑濕燥火와 이에 對應하는 地의 陰陽인 木火土金水에서 熱盛한 氣運인 暑와 火에서 起因한다고 하였다.

『素問·至眞要大論』<sup>26)</sup>의 病機十九條에서 “諸熱瘵 皆屬於火”라 하여 火를 病因으로 처음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唐代 王冰은 『素問·陰陽應象大論』註에서 少火를 生理的인 火로, 壯火를 病理的인 火로 說明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sup>27)</sup>註에서는 火熱病의 微少한 것을 人火, 病의 太甚한 것은 龍火라 稱하며, 實火를 人火로, 虛火를 龍火로 表現하므로써 病理的인 面으로 火의 虛實을 說明하였고, 또한 無火, 無水, 有火에 대한 理論을 세웠는데 無火는 元陽이 衰하여 陽虛한 것이며, 無水는 眞陰이 虧하여 陰虛한 것이고, 오직 有

16) 이시형 : 瘧병에 대한 연구, 高麗病院, 第1卷, 第2號, p. 63, 69.

17) 민성길 : 瘧病(火病)과 恨(恨), 大韓醫學協會誌, p. 1189.

18) Keh-Ming Lin : Hwa-Byung, Am J. Psychiatry 140 : 105-107.

19) 章眞如 : 風火痰論, p. 45.

20) 이시형 : 瘧병에 대한 연구, 高麗病院, pp. 63-69.

21) 민성길 : 瘧病(火病)과 恨(恨), 大韓醫學協會誌, pp. 1189-1198.

22) 金珍泰 : 火病에 대한 東醫學의 고찰,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pp. 68-83.

23) 洪元植 :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 41, 43.

24) 洪元植 : 上揭書, p. 378, 381, 474.

25) 이문재·이상일 : 火에 개념에 대한 동양의학적 고찰, 東洋醫學, p. 21.

26) 洪元植 :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 499.

27) 王 冰 : 新編黃帝內經素問, p. 600. “夫病之微少者, 猶人火也, 可以濕伏, 可以水滅, 病之太甚者, 猶龍火也.”

火만이 實證으로 邪熱이 盛한 것이라 하였다<sup>28)</sup>.

宋代에는 眞元, 眞火가 腎에 있다 하여 許<sup>29)</sup>는 “常須暖補腎氣”의 “以腎爲主”의 理論을 세워 “補脾不如補腎”을 主張하였고, 嚴<sup>31)</sup>은 補益을 論할 때 攝養을 잘못하거나 房勞過度하면 眞陽인 火가 衰하여 脾土가 不運하니 “補脾如補腎”을 主張하였고, 遺濁을 論할 때, 思慮不節하고 嗜欲過度하면 水火不交하게 된다 하였다. 즉 許와 嚴은 火를 眞元이나 眞火라 하였고 消化力의 動力이 된다고 보아 이는 後代에 心腎不交說<sup>32)</sup>의 基礎가 되었다.

金·元時代에는 陰火, 虛火, 五志之火 등의 內因과 外感六淫의 外因이 제시된 時期로, 火에 대한 運氣學說을 根幹으로<sup>33)</sup> 劉<sup>34)</sup>는 “治不法天之紀地之理, 則災害之矣”, “夫一身之氣, 皆隨四時五運六氣與衰, 而無相反矣.”라 하여 五運六氣의 變化가 人間의 疾病 發生에 密接한 關係가 있다 하였으며, 『素問·至眞要大論』<sup>35)</sup>의 病機十九條로 대다수의 疾病을 說明하고,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으로 나누어 六氣가 일으키는 證候를 21種에서 81種으로 擴大하였고, 그중 2/3에 해당하는 56種이 火·熱로 이루어져 六淫中 火·熱이 가장 重要한 致病素인이라 하여 『主火論』을 主張하였으며, “不必一氣獨爲其病, 風寒濕燥等病, 多從火熱兼化或轉化”라 하여 病理過程上 六氣가 대다수 火熱과 兼化되거나 轉化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sup>36)</sup>, 『素問·六微旨

大論』<sup>37)</sup>의 亢害承制論을 發展시켜 六淫의 變化機轉과 性質을 強調하였다<sup>38)</sup>. 또한, 劉는 五志가 過極하면 모두 熱病이 되며, “將息失宜 以心火暴甚 腎水虛衰 不能制之”라 하여 感情의 要素가 火病의 原因이 되며 降心火 益腎水하는 治法을 사용하였다<sup>39)</sup>40).

한편 張<sup>41)</sup>은 『儒門事親』에서 劉河間의 學說인 外因論에 기초를 두어 火·熱이 惟獨히 많다 하여 邪去正安의 理論으로 吐·汗·下 三法인 『主攻論』을 主張하였으며<sup>42)</sup>, 당시 社會에 流行하던 燥熱溫補하는 弊端을 “知補之爲利 而不知補之爲害也”라 하면서 “夫養生當論食補, 治病當論藥攻.”의 이론을 제시하였다<sup>43)</sup>. 또한 『素問·舉痛論』<sup>44)</sup>에 根據하여 “氣本一也 因所觸而爲九”<sup>45)</sup>라 하여 喜, 怒, 悲, 思, 驚, 恐, 勞는 內傷으로 寒, 暑(包括風, 濕, 燥, 火)는 外傷으로 나누었고<sup>46)</sup>, “五志所發 皆從心造…平心火”<sup>47)</sup>라 하여 五志之火는

28) 王 冰 : 上揭書, p. 599. “當助其腎, 內格嘔逆, 食不得入, 是有火也…故心盛則生熱, 腎盛則生寒…心虛則熱收於內, 又熱不得寒, 是無火也. 寒不得熱, 是無水也…”

29) 許叔微 : 普濟本事方, pp. 21~22, 85. “治脾胃虛弱. 全不進食. 二神圓…有人全不進食 服補脾藥皆不驗…蓋因腎氣怯弱 眞元衰劣”, “若腰腎氣盛 是爲眞火…常須暖補腎氣 飲食得火力.”

30) 嚴世芸 : 許叔微的脾胃觀, 上海中醫雜誌, pp. 24~26.

31) 嚴用和 : 濟生方-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11, p. 452, 487, 488. “不喜攝養房勞過度眞陽衰虛坎火不溫不能上蒸脾土…古人云補腎不如補脾 余謂補脾不如補腎”, “若夫思慮不節嗜欲過度遂使水火不交精元失守由是爲赤濁白濁之患焉.”

32) 金完熙·崔達永 : 臟腑辯證論治, p. 410.

33) 李聰甫·劉炳凡 :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p. 8.

34) 劉河間 : 劉河間三六書, p. 253, 269. “治不法天之紀地之理, 則災害之矣…不知運氣而求醫無失者鮮矣.”

35) 洪元植 :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p. 499~500.

36) 劉河間 : 劉河間三六書, pp. 306~307. “夫百病之生也. 皆生于風寒暑熱燥火以知化之變也…故風火則反涼而毀折, 是兼金化, 制其木也…是反兼金化也.”

37) 洪元植 :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 392.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害則敗亂, 生化大病.”

38) 劉河間 : 劉河間三六書, p. 287, 297. “夫五行之理, 甚而無以制之, 則造化息矣”, “況木極似金, 金極似火, 火極似土, 土極似木…亢則害, 承乃制, …命曰大惑”

39) 劉河間 : 素問玄機原病式 注釋本, p. 116, 187. “夫五臟者 肝心脾肺腎也 五臟志者 怒喜悲思恐也悲一憂憂 若志過度則勞 勞則傷本臟 凡五志所傷皆熱也”, “將息失宜 以心火暴甚 腎水虛衰 不能制之…多因喜怒哀悲恐之五志 有所過極 而卒中者 由五志過極 皆爲熱甚故也.”

40) 李聰甫·劉炳凡 :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p. 10, 12.

41) 張子和 : 儒門事親校注, pp. 95~96. “夫病之一物, 非人身素有之也. 或自外而入, 或由內而生, 皆邪氣也. 邪氣加諸身, 連攻之可也”, “吐汗下三法 先論攻其邪 邪去而元氣自復也”

42) 李聰甫·劉炳凡 :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p. 68. “火”, “熱”爲獨多…“邪去正安”的指導思想基於外因論, 來源於劉完素的寒涼學說.

43) 宋隆燮 : 張從政의 生涯와 醫學思想, 東洋醫學, p. 36.

44) 洪元植 :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 239. “百病生於氣也. 怒則氣上, …九氣不同.”

45) 張子和 : 儒門事親校注, pp. 182~183. “此軒岐所以論諸痛, 皆因于氣. 百病皆生于氣, 遂有九氣不同之說”, “氣本一也, 因所觸而爲九. 所謂九者, 怒喜悲恐寒暑驚思勞也.”

46) 李聰甫·劉炳凡 :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pp. 72~73. “九氣”包括內傷和外傷兩部分. “生克制勝”的原理並行指導治療…爲後世醫家指出了精神治療的重要性.

47) 李聰甫·劉炳凡 : 上揭書, p. 189. “…五志所發皆從心造…皆以平心火爲主…心便屬火 二者亦以平心爲主”, “凡此七者, …故悲可以治怒…喜可以治悲…恐可以治喜…怒可以治思…思可以治恐…”

心에서 생기니 平心해야 한다고 하였고, 生克制勝의 원리로 病人의 心理, 病理상태를 치료해야 한다고 精神療法 또한 말하였다.

李는 『素問·調經論』 48)의 “陰虛生內熱”의 理論에 根據하여 『脾胃論』, 『內外傷辯惑論』 등에서 飲食失節, 勞役過度, 喜怒憂恐 등의 精神的 刺戟에 의해 元氣가 損傷이 되면 內傷 陰火가 發生된다 하였다<sup>49)50)</sup>. 內傷의 病理機轉은 元氣와 陰火의 關係 失調와 升降失常의 面으로 解釋하면서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 51)라 하여 相互 制約의 關係가 있다 하며, 그 예로 九竅不利, 內障病을 들었다<sup>52)53)</sup>. 또한, 陰火의 症候는 內傷發熱이며 熱型은 躁熱이므로 後代에는 氣虛發熱이라 하였고, 東垣의 陰火의 治法은 『素問·舉痛論』 54)에 根據하여 甘溫除熱法을 使用하였다<sup>55)</sup>. 王<sup>56)</sup>은 『湯液本草』에서 黑附子和 從蓉을 說明하면서 命門火 不足으로 인한 內傷病을 言及하였고, 東垣의 영향을 받아 內傷病을 중시하였으나 東垣은 脾胃를 強調한 데 反하여 好古는 腎을 더 중시 하였다.

朱는 春秋戰國時代 陰陽五行論과 宋代 明理學의 影響을 받아<sup>57)</sup>, 『相火論』 58)에서 “陽動陰靜”의 理論으

로 提示하였는데, 事物은 動과 靜으로 生존하며 動이 기본이 되고, 自然 萬物의 生成과 人體 生命의 維持는 動으로 常을 삼는다고 보았다. 또한 君火는 有名有形으로 人體의 正常的인 神明活動을 가리키며, 相火는 有名無形으로 생겨나는 部位에 따른 것이며, 肝·腎의 二臟에 寄하고, 다시 心包絡·膀胱·三焦·膽의 모든 腑에 分屬된다 하였고, 常은 人體의 正常的인 局部 열에너지이고, 變은 人體의 反常의 局部 內生하는 火熱로, 陰虛相火와 濕熱相火를 말하여 相火의 生理와 病理의 面을 說明하였다<sup>59)60)</sup>. 『陽有餘陰不足論』 61)에서 天地는 항상 陽有餘 陰不足하다 하고, 人體도 항상 氣有餘 血不足하니, 人體의 相火는 쉽게 動하게 되고, 相火가 妄動하면 陰精이 저절로 흐른다고 하였다. 즉, 생리적인 相火란 人體의 生生不息하는 기능활동이며, 병리적인 相火란 元氣之賊이라 하여 妄動된 相火라 하였고, 火란 陰虛火動이며 氣有餘라 하여 “滋陰降火”의 治法을 主張하였다<sup>62)63)</sup>.

李<sup>64)</sup>는 『醫學入門』에서 火의 性質을 “性暴無常主病多”라 하였고, “火病死人甚暴 變化無常 一動便傷元

48) 洪元植 :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 353. “有所勞倦 形氣衰少…胃氣熱 熱氣薰胸中 故內熱.”

49) 李東垣 外 五名 : 東垣十種醫書中 內外傷辯惑論, p. 36. “或因勞役動作, 胃間陰火, 沸騰…”

50) 大田大學校 第5期 卒業準備委員會 : 東垣脾胃論譯, p. 87, 134, 135. “若飲食失節 寒溫不適…喜怒憂恐 損耗元氣 皆脾胃氣衰…”, “凡忿怒悲思恐懼, 皆損元氣, 夫陰火之熾盛, 故曰陰火太盛.”

51) 大田大學校 第5期 卒業準備委員會 : 上揭書, p. 87. “元氣不足而心火獨盛 心火者 陰火也 起於下焦…相火…元氣之賊也 火與元氣 不兩立一勝則一負 脾胃氣虛 則下流於腎 陰火 得以承其土位.”

52) 大田大學校 第5期 卒業準備委員會 : 上揭書, p. 151. “脾胃既爲陰火所乘, 九竅爲之不利…”

53) 李東垣 外 五名 : 東垣十種醫書中 蘭室秘藏, pp. 174~175. “尤忌食冷水大寒之物, 此則能損胃氣, 則元氣不生, 上入腦, 灼髓, 火主散益, 髓子開大, 大熱之物, 又助火邪, 此蓋不可食驗也.”

54) 洪元植 :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 239. “勞則氣耗…勞則喘息汗出 內外皆越 故氣耗矣.”

55) 丁光迪 : 東垣學說論文集, p. 80, 83.

56) 李東垣 外 五名 : 東垣十種醫書中 湯液本草, p. 364, 388. “黑附子 : 通行諸經引用藥, 入手少陰經三焦命門之劑”, “從蓉 : 液云 : 命門相火不足, 以此補之.”

57) 李聰甫·劉炳凡 :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p. 219.

58) 大田大學校 第7期 卒業準備委員會 : 譯釋 丹溪醫論 格致餘論·局方發揮, pp. 116~117. “太極 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火內陰而外陽 主乎動者也 故凡動皆屬火. 以名而言 故謂之君以位而言 故謂之相. 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生 亦恒於動 其所以恒於動 皆相火之爲也.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動而爲火者也.”

59) 楊震 : 丹溪相火學說에 對한 研究(上), 醫林, pp. 52~56.

60) 楊震 : 丹溪相火學說에 對한 研究(下), 醫林, pp. 20~24.

61) 大田大學校 第7期 卒業準備委員會 : 譯釋 丹溪醫論 格致餘論·局方發揮, p. 14, 16. “人受天地之氣以生…陰氣爲血. 故氣常有餘 血常不足”, “故陽道實 陰道虛…二臟皆有相火而其系上屬於心…心動則相火亦動 動則精自走…相火翕然而起…教人收心養心其旨深矣.”

62) 禹元洪·鄭遇悅 : 火의 概念에 對한 時代의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p. 122.

63) 大田大學校 第7期 卒業準備委員會 : 譯釋 丹溪醫論 格致餘論·局方發揮, pp. 117~118. “五性感物而萬事出 有知之後 五者之性爲物所感 不能不動 謂之動者 即內經五火也. 相火易起 五性厥陽之火 相扇則妄動矣. 火氣於妄 變化莫測…蓋表其暴悍酷烈 有甚於君火者也. 故曰 相火 元氣之賊…”

64) 李 樞 : 編註醫學入門, pp. 320~321. “火因內外分虛實 : 外因邪鬱經絡 積熱臟腑 有餘之火 內因飲食 情慾 氣虛似火 有餘中不足 陰虛火動 乃不足之火”, “性暴無常主病多 : 火病死人甚暴變化無常 一動便傷元氣…故曰諸病尋痰火 痰火生異證”, “是以內傷火多 外感火少.”

氣”이라 하여 病의 危重함을 言及했고, 有餘之火, 有餘中不足之火, 不足之火 卽 實火, 虛火로 나누어 “內傷火多 外感火少”라 하였고, 또한 “諸病尋痰火 痰火生異證.”이라 하여 모든 병은 痰火에서 생긴다 하였다. 張은 『景岳全書·君火相火論』<sup>65)</sup>에서 火는 무릇 사람을 傷하지만 君火인 眞火는 그렇지 않으며 邪火는 敵이라 말할 수 있으나 相火는 가히 敵이라 말할 수 없다 하였고, 君火, 相火는 眞火로 正火, 陽氣이며 人體의 生化之權이고 邪火 卽 致病之火는 外感和 內傷發熱이라 했다<sup>66)</sup>. 또한 火는 熱病의 原因이 되지만 火가 正道를 지키면 陽氣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火는 없어서는 안될 重要的 意味가 있으며, 만일에 火가 正道를 잃게 되면 陽氣가 衰弱해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였다. 熱邪는 火가 마땅히 그 正道를 離脫한 것으로 심하게 되면 眞陰을 衰竭시키는 境遇도 있다 하였다<sup>67)</sup>. 그리고, 『傳忠錄』<sup>68)</sup>에서 河間의 火의 虛實과 盛衰를 판단하지 못하고 實火로만 말한 것을 批判하고 虛火의 重要性을 강조하였고, 虛火證은 假熱證이며 病源有二, 外證有四라 하였고, 五志之火를 論할 때 劉河間, 朱丹溪, 劉宗厚는 五志所傷이 五臟火를 일으킨다고 하였으나, 景岳은 五志之傷이 전부 火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傷氣者가 9/10이고, 動火者가 1/10이라 하였다<sup>69)</sup>. 薛<sup>70)</sup>은

『薛氏醫安』에서 命門火衰 不能生土라 해서 胸膈作痞 飲食難化의 症狀에 補命門火하는 治法을 썼다. 虞<sup>71)</sup>는 『醫學正傳』에서 火邪의 虛實을 잘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龔<sup>72)</sup>은 『古今醫鑑』에서 “浮而洪數爲虛火, 沈而實大爲實火”라 해서 脈으로 火의 虛實을 表現하였고, 또한 五臟火를 설명하였다.

清代 唐<sup>73)</sup>은 『血證論』에서 女子의 受胎나 生理에 따라 血虛 狀態가 되면 肝失所藏, 心失所養하면 火旺而益傷血하므로 血由火生이라 했으며 大補其血하는 治法을 썼고, “血虛則神不安而怔忡 有瘀血亦怔忡 火擾其血則懊憹”이라 하여 心에 중점을 두어 血虛와 瘀血과 火의 關係를 말하였다. 吳<sup>74)</sup>는 『醫宗金鑑』에서 癰疽는 火毒이 經絡을 阻滯시켜 氣血을 凝滯시키면 생긴다고 하였다. 陳은 『石室秘錄』에서 癰證은 陽明胃火를 治療해야 하며, “知治陽明之法 則五臟之火 各隨火 無難尊治矣”라 하여 陽明胃火의 重要性을 말하였고, 또한 肥人은 氣虛多痰으로 補命門火해서 治痰하며, 瘦人은 水之不足의 多火로 補水以鎖陽光이라 했고<sup>75)</sup>, 『辯證錄』에서 命門火가 衰하면 小便不通이 되니 助命門火하는 治法을 말하였다<sup>76)</sup>. 程은 『醫學心悟』에서 火의 病因을 外火(賊火)와 內火(子火)로 나누어 驅賊火, 養子火하는 治法을 使用했다<sup>77)</sup>. 庵은 『醫方集解』에서

65) 張景岳 : 景岳全書, p. 35. “人之情欲 多有妄動 動則俱能起火 火盛致傷元氣 卽爲元氣之賊… 凡火之賊傷人者 非君相之眞火… 邪火可言賊 相火不可言賊也.”

66) 陳熙甫 : 不因溫補廢寒涼, 上海中醫雜誌, pp. 35~36.

67) 張景岳 : 景岳全書, p. 316. “火得其正 卽爲陽氣 火之不可無… 火失其正 是以邪熱此火之不可有 尤不可甚 甚則眞陰傷敗也.”

68) 張景岳 : 上揭書, pp. 60~61, pp. 314~315. “不解虛實 不察盛衰… 夫實火爲病 因爲可畏 而虛火之病 尤爲可畏 …矧今人之虛火者多 實火者少 豈皆屬有餘之病…”, “凡虛火證 卽假熱證也… 一曰 陰虛者 眞陰虧損 水不制火也 二曰 陽虛者 元陽敗竭 火不歸源也 此病源之二也 外證之四 一曰…無根之火也 二曰…格陽之火也 三曰…失位之火也 四曰…陰虛之火也 此外證之四也 然證雖有四而本則惟二 或在陰虛 或在陽虛…第陰虛之火有一 曰金水敗者 陽虛之火有三 曰上中下者.”

69) 張景岳 : 上揭書, p. 316. “…未聞以五志之動 皆爲火也 志失宜則未免有傷陽氣…自三子之說行…卽因志動火者非曰必無 但傷氣者十之九 動火者十之一 又豈五志皆能動火乎…五志之傷則無非傷氣敗陽之證尙可謂之火乎.”

70) 薛 己 : 薛氏醫案-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31, p. 10, 11. “脾胃虛寒無火之症…補火而生土…培養中官生發陽氣尋愈”, “脾胃虛寒遂用八味丸補命門火 不月而飲食 進三月而形體充”

71) 虞天民 : 精校醫學正傳, p. 186. “心爲君火而又有相火寄於肝腎二臟 卽內經一水不能勝二火也 五性之火爲物所感而動 卽內經一水不能勝五火也…知其火邪之虛實或補或瀉用藥以乎之”

72) 龔信贊 : 古今醫鑑, p. 85. “脈: 浮而洪數爲虛火 沈而實大爲實火. 洪數見于左寸爲心火見于右寸爲肺火 見于左關爲肝火 見于右關爲脾火. 兩尺爲腎與命門之火 男子兩尺洪大者必主遺精 陰火盛也. 病熱有火者可治 洪大是也. 無火者難治 沈細是也.”

73) 唐宗海 : 血證論, p. 3, 10.

74) 吳 謙 外 79名 : 醫宗金鑑 下, pp. 43~44. “癰疽原是火毒生經絡 阻滯氣血凝…”

75) 陳士鐸 : 新編 石室秘錄, p. 98, 99. “肥人多痰 乃氣虛也 虛則氣不能運行 故痰生之…必須補 其氣…而當兼補其命門之火…氣足而痰自消.”, “瘦人多火 火之有餘 水之不足也 不補水以鎖陽光.”, “火治者 治火之有餘也 火症甚多 惟陽明一經最難…知治陽明之法 則五臟之火 各隨火 無難尊治矣.”

76) 陳士鐸 : 辯證錄, pp. 532~533. “…命門火衰 而膀胱之水閉矣…治法必須助命門之火…必須于水中補火 則火生于水之中 水卽通于火之內耳!…”

77) 程國彭 : 增批醫學心悟, pp. 11~13. “夫實火者 六淫之邪 飲食之傷 虛火者 七情色慾勞役耗神”, “外火 風寒暑濕燥火及傷熱 飲食 賊火也 賊火驅而不可留.”, “內火 七情色慾 勞役耗神 子

火者氣之不得氣平者, 氣有餘便是火, 諸病之中 火病爲多라 해서 瀉火之劑를 利用하였다<sup>78)</sup>. 張은 「張氏醫通」에서 陽火는 陰之患이며, 煩躁는 火가 홀로 熾盛하여 發生하고, 鬱證은 婦人의 경우에 많이 일어나며 內經에서는 二陽의 病이 心脾에서 일어나며 思想이 無窮하고 願하는 바를 얻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하여 七情으로 인한 婦人들의 火症狀을 설명하였다<sup>79)</sup>.

最近 章<sup>80)</sup>은 「風火痰癆論」에서 크게 陽火를 歲運太過, 六淫化火, 飲食失節, 高溫作並으로 陰火를 胃陰不足, 陰虛火盛, 陰盛逼陽, 肝氣抑鬱로 나누어 各各의 火의 病理를 說明하였고, 人體의 眞火, 元陽은 抗體와 相當하며 外界刺戟에 對하여 免疫反應을 일으키고 元陽不足이 되면 免疫機能이 低下되어 疾病에 對한 抵抗能力이 떨어진다고 했다. 張<sup>81)</sup>은 「醫學衷中參西錄」에서 火不歸原의 治法으로 下焦의 眞陰과 眞陽의 觀點에서 陰分之火와 陽分之火로 나누어 治療했다. 金<sup>82)</sup>은 「晴崗醫鑑」에서 精神의 苦惱와 葛藤은 心臟의 自律 循環과 精神機能에 影響을 주며, 脂肪 飲食物의 偏食, 飲酒過多, 高熱病, 其他 慢性 持病이 心臟 搏動과 血液 循環에 變調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였다. 朴<sup>83)</sup>은 「病因病機學」에서 外火는 직접 火熱의 邪를 感受하거나, 餘他

邪를 感受하여 轉化되는 實火로, 內火는 疲勞나 五志過極, 無節制한 性生活이나 臟腑의 陰陽, 氣血의 失調로 나타나는 虛火라 하고, 外火와 內火의 病機를 說明하였다. 杜<sup>84)</sup>는 命門의 機能은 五臟六腑와 全身에 灌及하니 生體의 盛衰盈虛에 左右되고 三焦와 配合하여 各 臟腑의 機能을 營爲하는 機能으로 解剖學的으로 腦, 脊髓의 中樞神經系와 合一되고 있으며 生殖腺, 甲狀腺 器官과 도 有關하다고 하였다.

## (2) 病因·病理側面에서의 火

### 1) 外因之火(六淫之火)

「素問·至真要大論」<sup>85)</sup>에서 “諸熱瘡癰 皆屬於火, 諸躁狂越 皆屬於火”라 하는 등 六淫중 火를 病因으로 인식하였고, 張<sup>86)</sup>은 「傷寒論」에서 “脈浮數, 熱甚而反灸之 此爲實 實爲虛治 因火而動 必咽燥吐血”이라 하여 外感 六淫을 一種의 火로 取扱하였다. 劉<sup>87)</sup>는 “火之爲病 可以多于風寒濕燥 其病多從火熱兼化或轉化”라 하여 六淫중 火·熱이 가장 중요한 致病素因이라 하고, 「五運主病」과 「六氣爲病」으로 설명하여 「主火論」을 주장하였으며, 張<sup>88)89)</sup>은 外因중 火·熱이 많다 하고 이를 邪氣라 칭하여 「主攻論」을 주장하였고, 李<sup>90)</sup>는 外感으로 因해 邪氣가 鬱滯된 것을 實火라 하였고, 이를 表·半表裏·裏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2) 五志之火

嚴<sup>91)</sup>은 思慮不節하면 水火不交하여 精元失守하니 赤

火也 子可養而不可害.”

78) 庵詵汪：醫方集解, pp. 271~272. “火者氣之不得氣平者也…故丹溪曰 氣有餘便是火也…虛火由於勞損 實火生於亢害 燥火本乎血虛 濕火因於濕熱 鬱火出於遏抑 又有無名之火 諸病之中 火病爲多 不可以不加察也…”

79) 張 璐：張氏醫通, p. 107, 273, 305. “鬱證多患於婦人 內經所謂二陽之病發心脾 及思想無窮 所願不得 皆能致病.”, “若氣盛則熱 氣衰則寒…皆陽火燥陰…亦陽火燥陰之患也”, “心火旺則水虧金燥 惟火獨熾 故肺腎合而爲煩躁也.”

80) 章眞如：風火痰癆論, p. 53, pp. 63~74. 陽火與陰火：在病理變化中的火邪, …凡實火, 賊火, 壯火, 統稱爲陽火; 虛火, 子火, 相火, 統稱爲陰火. 五臟之火, 五志之火, 六淫化火, 氣有餘便是火等, 統在其中矣.

81) 張錫純：醫學衷中參西錄 中, pp. 465~469. “此氣海之元陽 爲人生之本源 無論陰分 陽分之火 皆于此肇基…論下焦之火上竄不歸原 亦氣海元陽之浮越也…火不歸原 其病因原有數端 治法各有所宜.”

82) 金永勳：晴崗醫鑑, p. 236.

83) 朴贊國：病因病機學, pp. 509~517. (1) 外火病機：①火邪內播 ②火盛成毒 ③火極生風 ④火邪傷氣 ⑤火邪傷津 ⑥火傷血絡 ⑦火毒攻心 (2) 內火病機：①虛火上浮 ②陰火內熾 ③陰虛火旺 ④壯火食氣 ⑤臟腑實火

84) 杜鎬京：東醫醫系內科學, p. 28.

85) 洪元植：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p. 499~500.

86) 蔡仁植：傷寒論譯證, p. 94.

87) 劉河間：素問玄機原病式 注釋本, p. 34, 133. 「五運主病」, “諸痛痒瘡 皆屬於心火”, 「六氣爲病」, “諸熱瘡癰 暴瘡冒昧 躁擾狂越 罵詈驚駭 附腫疹癩 氣逆衝上 禁便如喪神守…暴注 痢疾 暴病 暴死 皆屬於火.”

88) 張子和：儒門事親校注, pp. 95~96. “夫病之一物, 非人身素有之也. 或自外而入, 或由內而生, 皆邪氣也. 邪氣加諸身, 速攻之可也.”

89) 李聰甫·劉炳凡：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p. 68.

90) 李 挺：編註醫學入門, p. 320. “外因邪鬱經絡 積熱臟腑 此爲有餘之火. 實火 因外感邪鬱在表者…半表裏…入裏…”

91) 嚴用和：濟生方·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11, pp. 487~488. “若夫思慮不節嗜欲過度 遂使水火不交精元失守由是爲赤濁白濁

濁이 생긴다 하였다. 劉<sup>92</sup>93)는 五志가 過度하면 勞하여 本臟을 傷하니 五志所傷皆熱也라 하여 五志之火를 말하였는데, 五志중 喜는 心志로 “心熱則多喜而爲癡也”라 하였고 怒는 肝志로 “肝實則多怒而爲狂也”라 하였으며 狂者는 五志間發하니 단지 怒가 많다 한 것은 “將息失宜 以心火暴甚 腎水虛衰 不能制之”하기 때문이어서 결국 六欲七情은 火에 속한다고 하였다. 張<sup>94</sup>)은 五志는 모두 心에서 생기니 五志(喜怒哀思)之火의 證은 心은 火에 속하니 平心해야 한다 하였다. 李<sup>95</sup>)는 喜怒哀思恐懼는 모두 元氣를 손상시켜 陰火를 熾盛시킨다 하였고, 朱<sup>96</sup>97)는 五臟에 各各 火가 있어 五志가 激動되면 그 火가 따라 일어난다 하여 “大怒則火起於肝 醉飽則火起於胃 房勞則火起於腎 悲哀動中則火起於肺 心爲君主自焚則死矣.”라 하였고, 五性이 所感되면 不能不動하여 相火가 쉽게 일어나 五性厥陽之火가 妄動한다 하였다. 張<sup>98</sup>)은 “人之情欲 多有妄動 動則俱能起火 火盛致傷元氣 卽爲元氣之賊”라 하여 인간의 情欲으로 火가 생기며 이것은 邪火(邪念之火)로 元氣之賊이라 하

였고, 또한 五志所傷은 傷氣者가 9/10이고, 動火者가 1/10이라 하여 五志之傷은 傷氣敗陽之證이 아닌 것이 없다 하였다. 李<sup>99</sup>100)는 七情五志火는 各經에 생기니 “大怒火起於肝則手掉目眩, 悲哀火起於肺則氣上膈鬱, 心火輕則煩熱痛痒, 重則自焚面青發躁脈絕暴死”이라 하였고, 五志之火動이 極하면 不治라 하였으며, 多喜多怒하면 癡狂이 되며 이는 心肝 二經에 火가 有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3) 飲食之火

朱<sup>101</sup>)는 無節制한 食慾이 邪火를 妄動하게 한다 하였고, 노인들이 熱性음식, 炭화된 음식, 香辣的 음식, 甘膩한 음식을 먹으면 더욱 陰虛火盛 하게 되니 먹지 말라 하였다. 李<sup>102</sup>)는 “醉飽火起於胃則痞塞腫滿”이라 하였고, 內傷生冷及飲食으로 因하여 陽氣가 막히면 鬱火가 생긴다고 하였고, 傷熱物或酒麵으로 인해 發熱, 心口刺痛한 것은 伏火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 4) 勞倦之火

李<sup>103</sup>)는 勞役過度하면 元氣를 損傷시키며, 脾胃가 虛衰하면 元氣가 不足하여 陰火인 心火가 熾盛한다고 하였고, 勞役動作으로 인해 腎間 陰火가 沸騰한다 하였다. 王<sup>104</sup>)은 五勞七傷은 命門火 不足이니 菴蓉으로 補해야 한다 하였고, 李<sup>105</sup>)는 勞倦傷胃로 無力, 身熱한 것은 氣

之患焉 赤濁者心虛有熱也多因思慮而得之”

- 92) 劉河間：素問玄機原病式 釋釋本, p. 116, 140. “夫五臟者 肝心脾肺腎也 五臟之志者 怒喜悲思恐也 悲一作憂 若志過度則勞 勞則傷本臟 凡五志所傷皆熱也”, “將息失宜 以心火暴甚 腎水虛衰 不能制之”, “六欲七情 爲道之患 屬火故也”, “喜爲心志 故心熱甚則多喜而爲癡也 怒爲肝志…故肝實則多怒而爲狂也 況五志所發皆爲熱 故狂者五志間發 但怒多.”
- 93) 李聰甫·劉炳凡：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p. 10.
- 94) 張子和：儒門事親校注, p. 189. “…五志所發皆從心造 故凡見喜怒哀思恐之證皆以平心火 爲主 至於勞者傷於動 動便屬陽 驚者駭於心 心便屬火 二者亦以平心爲主…”
- 95) 大田大學校 第5期 卒業準備委員會：東垣脾胃論譯釋, pp. 134~135. “凡忿怒悲思恐懼, 皆損元氣, 陰火之熾盛, 由心生凝滯, 七情不安故也…火者, 七神之賊也. 故曰陰火太盛, …乃脈病也.”
- 96) 大田大學校 第7期 卒業準備委員會：譯釋 丹溪醫論 格致餘論·局方發揮, p. 162, 117, 118. “五臟各有火 五志激之其火隨起”, “…卽內經五火也. 相火易起 五性厥陽之火 相屬則妄動矣.”
- 97) 朱丹溪：金匱鈞玄·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14, p. 745. “厥陰藏府之火根於五志之內六欲七情激之其火隨起 大怒則火起於肝…心爲君主自焚則死矣.”
- 98) 張景岳：景岳全書, p. 35, 316. “人之情欲 多有妄動 動則俱能起火 火盛致傷元氣 卽爲元氣之賊…夫情欲之動 邪念也 邪念之火爲邪氣…凡火之賊傷人者 非君相之真火…皆邪火耳 邪火可言賊 相火不可言賊也”, “五志所傷之人…卽因志動火者非曰必無 但傷氣者十之九 動火者十之一…五志所傷則無非傷氣敗陽之證 尚可謂之火乎.”

- 99) 李 挺：編註醫學入門, p. 321. “七情五志火起宜隨各經調之 大怒火起於肝則手掉目眩…悲哀火起於肺則氣上膈鬱…心火輕則煩熱痛痒…重則自焚面青發躁脈絕暴死故曰五志之火動極不治.”
- 100) 李 挺：編註醫學入門(下), p. 1579. “癡狂痰火閉心堂都緣喜怒大無常：素問註云 多喜爲癡 多怒爲狂 喜屬心 怒屬肝 二經皆火有餘”
- 101) 大田大學校 第7期 卒業準備委員會：譯釋 丹溪醫論 格致餘論·局方發揮, p. 11, 27, 225. “因縱口味 五味之過 疾病蜂起”, “所以物性之熱者 炭火製作者 氣之香辣者 味之甘膩者…明矣.”
- 102) 李 挺：編註醫學入門, p. 321. “醉飽火起於胃則痞塞腫滿”, “飲食鬱火 因內傷生冷及飲食 不化抑遏陽氣於脾土四肢熱如燠以升散之劑發之…”
- 103) 李東垣 外 五名：東垣十種醫書中 內外傷辨惑論, p. 36. “或因勞役動作, 腎間陰火, 沸騰, 事閑之際, 或於陰涼處, 解脫衣裳, 更有新沐浴於背陰處, 坐臥其陰火下行, 還歸腎間…”
- 104) 李東垣 外 五名：東垣十種醫書中 湯液本草, p. 388. “菴蓉：主五勞七傷, 補中;…養五臟, 強陰, 益精氣, 多子;…液云：命門相火不足, 以此補之.”
- 105) 李 挺：編註醫學入門, p. 321. “虛火 氣虛火盛 因勞倦傷胃無

虛하여 火盛한 것이라 하였다.

### 5) 房勞之火

嚴<sup>106)</sup>은 房勞過度하면 眞陽(眞火)이 衰虛하여 上蒸脾土하지 못한다 하여 補腎하여야 한다 하였다. 朱<sup>107)</sup>는 항상 陽有餘 陰不足하니 情慾을 함부로 하면 相火가 熾盛한다 하니 “陰平陽秘” 하여야 한다 하였다. 李<sup>108)</sup>는 “房勞火動於腎則骨蒸潮熱”이라 하였고, 傷色慾으로 午後發熱하는 것은 血虛火動의 所致라 하였다.

### 6) 痰之火

朱<sup>109)</sup>는 劉宗厚의 말을 인용하여 “因熱而生痰者 熱則煎津液而成痰 因痰而生熱者 痰則阻碍氣道而生熱”이라 하여 “熱生痰而痰生熱”은 始終과 新舊를 말한 것이며 老痰, 鬱痰은 火邪炎上으로 津液이 凝濁鬱結되어 오래된 것을 말한다고 하였고, 또한 癰은 대개 痰이 心胸之間에 凝結되어 있다 火動하면 발생한다고 하였다. 李<sup>110)</sup>는 痰證 初期에는 外感 表證과 유사하며 오래되면 內傷 陰火의 증상과 유사하다고 하였고, 氣升 屬火하니 因氣動者는 痰氣라 하고 因火動者는 痰火라 하여 痰과 火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章<sup>111)</sup>은 脾虛하면 生濕, 生痰하여 因痰致熱하니 熱痰內擾하여 睡不安寐한다 하여 痰擾不寐의 과정을 설명하였고, 葉香岩, 薛生白, 吳鞠通, 王孟英 등은 濕痰, 熱痰, 燥痰 등이 “濕熱 逼留氣分 鬱而生痰 以及對痰熱濁邪 內蒙心包”하여 神昏譫語, 煩亂不安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 7) 瘀血之火

張<sup>112)</sup>은 “太陽病…其人發狂者 以熱在下焦 少腹當硬滿 小便自利者…以太陽髓經瘀熱 在裏故也”, “太陽病…小便自利 其人如狂者 血證諦也”, “傷寒有熱 少腹滿 應小便不利 今反利者 爲有血也”라 하여 熱과 瘀血이 博結된 太陽病 蓄血證의 輕重을 설명하였다. 『金匱要略』<sup>113)</sup>에서는 “病者如熱狀 煩滿 口乾而渴 其脈反無熱 此爲陰伏 是瘀血也”라 하여 瘀血이 低熱을 일으키고, “婦人年五十…暮即發熱 少腹裏急 腹滿 手掌煩熱 脣口乾燥…曾經半產 瘀血在少腹不去”라 하여 瘀血이 潮熱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唐<sup>114)</sup>은 “瘀血在臍理則營衛不和 發熱惡寒…傷營氣則惡寒 傷衛氣則惡熱…瘀血在肌肉則翕翕發熱”라 하여 瘀血에 의한 發熱을 설명하고, “瘀血在經絡臟腑之間 被氣火煎熬 則爲乾血”이라 하여 陰虛陽亢한 氣가 위에서 心火와 합쳐져 瘀血凝滯하여 火氣所薰이 된다 하였으며, “瘀血不去 新血且無生機”라 하였다. 章<sup>115)</sup>은 “瘀血阻絡 臍理閉塞 肺氣不得宣泄 熱邪由內發生”이라 해서 瘀血發熱의 病機를, “瘀血內蓄 蘊結日久則化熱 熱灼津液 心失所養則煩躁不安 熱邪耗津則口渴飲飲”이라 해서 瘀血口渴을, “瘀阻脈絡 可傳化爲熱蘊火結”해서 瘀血淋濁을 설명하였다. 周<sup>116)</sup>는 “腹中常自覺有一段熱如湯火者 此無與氣化之事也 非實火內熱 亦非陰虛內熱 是瘀血之所爲也”라 하여 瘀血內熱을 설명하였다.

### (3) 火証

火証에 대해서 歷代 醫家들이 언급한 바가 적었는데, 張<sup>117)</sup>은 『景岳全書』에서 火証을 관찰하는데 있어 必

力身熱…”

- 106) 嚴用和: 濟生方-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11, p. 452. “…不喜攝養房勞過度眞陽衰虛坎火 不溫不能上蒸脾土冲和失布中州不運…已食而不消大腸滿泄此皆眞火衰虛不能蒸騰脾土而然.”
- 107) 大田大學校 第7期 卒業準備委員會: 譯釋 丹溪醫論 格致餘論·局方發揮, p. 13, 225. “徇情縱欲 惟恐不及 濟以燥毒. 氣陽血陰人身之神 陰平陽秘 我體長春.”
- 108) 李 梴: 編註醫學入門, p. 320, 321. “房勞火動於腎則骨蒸潮熱”, “血虛火動 因傷色慾午後發熱”
- 109) 朱丹溪: 丹溪心法附錄, p. 334, 338, 359, 360.
- 110) 李 梴: 編註醫學入門, p. 1397, 1400, 1401. “痰證初期頭痛發熱類外感表證 久則潮咳夜重類 內傷陰火”, “氣升屬火因氣動者曰痰氣…因火動者曰痰火”
- 111) 章眞如: 風火痰瘀論, p. 81, 92, 93.

- 112) 蔡仁植: 傷寒論譯詮 第131, 1321, 133條, pp. 100~102.
- 113) 楊向輝: 金匱要略注釋, 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 婦人雜病脈證并治, p. 218, 269.
- 114) 唐宗海: 血證論, pp. 117~119. “瘀血在臍理則營衛不和 發熱惡寒…傷營氣則惡寒 傷衛氣則惡熱…瘀血在肌肉則翕翕發熱”, “瘀血在經絡臟腑之間 被氣火煎熬 則爲乾血 氣者 腎中之陽 陰虛陽亢 則其氣上合心火 是以氣 盛 即是火盛 瘀血凝滯 爲火氣所薰 則爲乾血…病至此者 十治二三…瘀血不去 新血且無生機”
- 115) 章眞如: 風火痰瘀論, p. 111, 123, 127.
- 116)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周學海: 讀醫隨筆), p. 362.
- 117) 張景岳: 景岳全書, p. 317. “凡察火証 必須察其虛實 雖其元氣本虛 然必虛中挾實者…或大便乾結…此皆虛中有實也…或內外俱熱而反見瀉泄…諸虛皆見…”



須的으로 虛實을 살펴야 하며, 虛中有實(虛中挾實)과 諸虛의 경우가 있다 하였으며, 火證을 症狀으로 표현하였다. 陣<sup>118)</sup>은 『石室秘錄』에서 火證은 심히 많으며, 陽明之法을 알면 五臟之火나 各各 腑火의 치료는 어렵지 않다 하여 陽明胃火의 重要性을 말하였고, 林<sup>119)</sup>은 『類證治裁』에서 火證을 “風寒暑濕燥皆外因 惟火多屬內因”이라하여 病因으로 받아들였고, 邪火라 하여 實火, 虛火, 濕火, 鬱火, 陰火, 五臟火, 六腑火, 遊行不歸經之火로 나누어 각각의 治法을 설명하였다.

특히, 章<sup>120)</sup>은 『風火痰癆論』에서 火證이란 火로 인한 疾病을 말하고, 熱證이 化火한 것까지 包括한다고 하였으며, 常見하는 火證으로 10餘種의 疾病이 있는데 頭火는 實火이며, 肝陽上亢의 肝火上衝의 所致이며, 火眼은 流行性結膜炎으로 風火가 目에 上犯한 것이며, 火牙는 牙周炎, 牙齦炎으로 胃火가 牙齦에 侵犯한 所致이며, 寒包火는 感冒, 流感으로 熱邪, 暑邪, 燥邪가 體內 潛伏한 所致이며, 火咳는 慢性咽炎, 急慢性支氣管炎, 肺結核으로 火邪, 熱邪, 燥邪가 肺金을 侵犯한 所致이며, 火喘은 支氣管哮喘, 喘息性支氣管炎으로 肺胃積熱한 所致이며, 火瀉는 急性腸炎으로 濕熱化火한 所致이며, 痰火는 肺結核, 頸淋巴結核, 腋下淋巴結核으로 肝鬱脾虛, 痰火鬱結한 所致이며, 火中은 癰病, 蛛網膜下腔出血으로 七情過極으로 因한 中風의 一種이며, 火丹은 過敏性皮膚炎으로 心火가 妄動하여 三焦의 火熱이 肌表에 淫乘한 所致이며, 流火는 丹毒으로 火邪熱毒의 所致이며, 火毒은 瘡瘍腫毒으로 七情, 六淫, 膏粱厚味, 房室失節로 因한 化火生毒의 所致라 하여 各各의 關聯된 洋方病名과 韓醫學의인 原因을 說明하였다.

## 2. 火病에 대한 考

火로 因한 疾病을 『景岳全書』<sup>121)</sup>에서 火證이라 言

及하였고 病理의인 面이 強하고 우리나라에서는 火病, 癰疽병이라 하여 心因性 疾患의 表現으로 전해져 왔다<sup>122)</sup>.

4. 19.以後 우리나라 精神醫學의 태동이 일어나면서 民俗精神醫學을 바탕으로 한국 傳統文化의 精神健康과 한국 민간의 精神病觀과 治療 등의 연구를 통해 傳統文化에 대한 肯定的인 關心이 있어 왔으며<sup>123)</sup>, 李<sup>124)</sup>는 『夜尿症』과 『아우타는 것』을 예로 들어 우리 精神醫學과 精神健康에 관련된 韓國의 傳統的 文化의 肯定的인 面을 강조하였다. 李<sup>125)</sup>는 民俗精神醫學(Ethnopsychiatry) 觀點으로 우리나라 民間의 疾病觀 및 精神病觀과 治療法을 道敎的, 샤머니즘的, 佛敎的, 기타 原始民族에서 볼 수 있는 魔術의 要素들을 巫俗社會의 觀念으로 보았고, 金 등<sup>126)</sup>은 疾病觀念이나 治療法의 特殊性이 그 文化의 特異한 人格 形成要因과 關聯된다 하였고, 現代醫學의 治療는 매우 적어 올바른 精神疾患 概念과 治療法에 關한 啓蒙과 敎育이 切實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국 精神醫學의 발달로 閔은 이시형의 “찾병에 대한 연구”<sup>127)</sup>가 최초의 體系的인 研究라고 생각하였다<sup>128)</sup>.

### (1) 火病의 概念

張<sup>129)</sup>은 『景岳全書』에서 사람을 殺傷시키는 질병 가운데 火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여 病理的인 虛火로 因한 火病의 重要性을 주장하였고, 唐<sup>130)</sup>은 『血證論』에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血由火生

118) 陳士鏞：新編 石室秘錄, p. 166. “火治者 治火之有餘也 火症甚多 惟陽明一經最難…知治 陽明之法 則五臟之火 各腑火 無難尋治矣.”

119) 林瑛琴：類證治裁, p. 60. “風寒暑濕燥皆外因 惟火多屬內因…火在丹田之下爲少火…眞火. 火離丹田而上爲壯火…邪火. 然有實火虛火濕火鬱火陰火五臟六腑火遊行不歸經之火.”

120) 章眞如：風火痰癆論, pp. 46~47, pp. 63~74.

121) 張景岳：景岳全書, p. 317.

122) 金珍泰：火病에 대한 東醫學의 考察,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p. 79.

123) 李東植：韓國의 傳統文化속에 있는 精神健康에 關한 知慧에 對한 小考, 神經精神醫學, p. 37.

124) 李東植：上揭書, p. 39.

125) 李符永：韓國民間의 精神病觀과 그 治療(Ⅰ), 神經精神醫學, p. 35.

126) 金光日·元鎬澤：農村의 精神疾患 概念 및 治療에 關한 現地 調査, 神經精神醫學, p. 85, 95.

127) 이시형：찾병에 대한 연구, 高麗病院, 第1卷, 第2號, pp. 63~69, 1977.

128) 민성길·김진학：보길도에서 찾병에 대한 연구, 神經精神醫學, p. 459.

129) 張景岳：景岳全書, p. 317. “惟虛火之病 則本于元氣 元氣既虛…是以諸病之殺人 而尤惟火病爲最者…”

130) 唐宗海：血證論, p. 3. “…是血病卽火病矣…然血由火生…”

하니 血病이 곧 火病이 된다 하였으며, 田<sup>131)</sup>은 「中醫內傷火病學」에서 火病을 內傷火病과 新感溫病과 瘟疫病으로 區分하여 新感溫病은 人體가 溫熱之氣를 받아 생기며 春夏에 많다 하였고, 瘟疫病은 人體가 天地間의 不正之氣를 받아 생기며 四時 모두 있다 하였으며, 內傷火病은 人體의 陰陽, 氣血, 津液의 失調로 君火, 相火의 二火가 偏盛해 發病하며 四時에 모두 있다 하였다.

한편 趙<sup>132)</sup>는 火病이란 주로 마음이 原因이 되어 發生하는 것으로 心理的인 쇼크나 精神的인 葛藤에 의해서 腦에 器質的인 變化가 없이 일어나는 精神的 혹은 身體的인 症狀를 隨伴하는 病으로, 精神症(Psychosis)과는 달리 顯著한 人格의 變化가 없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西洋醫學에서 말하는 心身症이나 神經症 등은 火病의 範疇에 包含되지만 精神分裂症(Schizophrenia)이나 癇疾(Epilepsy) 등은 火病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文<sup>133)</sup>은 民間에서 말하는 火病이란 七情 stress에 의하여 발생한 체내의 熱感으로 鬱火, 心火, 肝火, 胃火, 陰虛火動(心腎不交)이 대표적인 것이라 하였다. 金<sup>134)</sup>은 火病과 한의학에서의 火의 相關性を 볼 때, 火性은 上炎·上昇作用을 하며 分散을 爲주로 하는 氣運이므로 卽 動的인 陽性을 뜻하므로 火病 症候들이 火性과 類似하게 치밀어 오르는 上向 症候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火病 症候가 憂鬱, 不安障礙 등의 憂鬱症이나 恨의 感情의 症候도 있기 때문에 火病 症候群들이 전부 火性과 같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火病의 概念과 한의학에서 論하고 있는 火의 概念에는 상당한 差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의학에서 五臟中 火臟인 心臟과의 相關性에서 心藏神이라 하여 心病이라면 神病으로 認識되어지고 있고, 火病 症候가 憂鬱症 같은 神病과 類似的인 症候로 볼 수 있기 때문에 心病-神病-火病으로 相關性を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具<sup>135)</sup>은 現代醫學에서의 更年期

症候群을 한의학에서는 節<sup>136)</sup>의 概念으로 보아야 하며, 「素問·上古天真論」<sup>137)</sup>의 天癸止나 「素問·陰陽別論」<sup>138)</sup>의 隱曲不利를 閉經이나 勃起不能의 意味로 解析하기도 하여 한의학적으로 男女 모두의 更年期를 의미하며, 更年期 症候群과 火病은 매우 類似하고 또한 환자들이 얘기하는 火病의 臨床的인 症候群이 韓醫學에서 이야기하는 火의 症狀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하였다.

서양의학에서 金<sup>139)</sup>은 火病은 神經症, 精神 身體疾患 및 精神病을 區別하지 못하는 民間에서 어떤 精神的 疾病에 붙인 病名으로 소위 火病은 傳統的으로 精神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李<sup>140)</sup>은 火病을 대인관계에서 화가 날 衝擊的인 사건이후 주로 발생하는 “Anger syndrome”이라 하였고, 그래서 화날 충격적인 사건을 환자가 처한 社會文化的 環境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생긴 心因性 反應으로 보았고, 神經症으로 본다면 프로이드의 Psycho Neurosis라기 보다는 Ego가 堪當할 수가 없는 感情狀態에서 오는 Actual Neurosis로 본다고 하였다. 吳<sup>141)</sup>는 火病은 神經症보다 精神病에 더 가까운 心理的 意義를 나타내었으며, 精神病과 火病의 개념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Lin<sup>142)</sup>은 火病을 재미 한국인교포 환자 3例를 통해서 抗憂鬱劑에 좋은 반응을 보여 한국인에게 特異한 文化的으로 발생하는 憂鬱과 關聯된 症候群으로 보았다.

그리고, 閔<sup>143)</sup><sup>144)</sup>은 우리 文化圈의 特殊한 精神疾患으로 보이는 火病의 概念이 現代 精神醫學의 概念과 어떻게 關聯되는지를 體系的으로 연구하여 火病에 대

131) 田合祿: 中醫內傷火病學, p. 5, 7.

132) 조흥건: 스트레스病과 火病의 韓方治療, p. 95, 96.

133) 문승모외 2名: stress와 화에 관한 동서의학적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p. 158.

134) 金珍泰: 火病에 대한 東醫學의 고찰,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p. 82.

135) 具炳壽·李鐘馨: 火病에 對한 文獻의 小考, p. 1, 2, 16.

136) 金碩鎭: 大山周易講解 下經, pp. 252~258.

137)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p. 19~20.

138)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p. 55~56.

139) 金용석외 7名: 농촌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지식 및 견해, 神經精神醫學, p. 374.

140) 이시형: 憂鬱에 대한 연구, 高麗病院, p. 63, 64, 68.

141) 吳洪根: 의미적도 방법에 의한 정신의학적 개념에 대한 조사연구, 神經精神醫學, p. 209.

142) Keh-Ming Lin: Hwa-Byung, Am J Psychiatry 140: 105~107, 1983.

143) 민성길·김진학: 보길도에서의 憂鬱에 관한 연구, 神經精神醫學, p. 459, 460, 465.

144) 민성길외 5名: 憂鬱(火病)에 대한 診斷의 研究, 大韓醫學協會誌, p. 659.

한 개념, 진단적, 임상적 체계를 수립하였는데 火病은 여자에 많고 나이가 많고, 진단이 2개이상 복합된 경우가 많았고, 진단을 내릴만큼 神經症의 증세가 뚜렷하고 진단명에서는 憂鬱症과 身體化障礙가 複合된 상태로, 기타 凡不安症狀, 恐慌症狀, 恐怖症 등이 흔히 併發하고 있는 하나의 獨特한 症候群이라 하였다. 또한 閔<sup>145)146)</sup>은 恨을 消極的, 積極的 恨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이러한 한국인 고유의 전통적인 정서표현으로 알려진 恨은 火病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였고, 한편 精神科 醫師는 火病을 하나의 病名이라기 보다는 韓國의 文化關聯 症候群으로서의 恨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肯定的이었고, 韓醫師는 火病을 하나의 病名으로 인정하는데는 肯定的이나 文化關聯 症候群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否定的이었다고 하였다. 李<sup>147)</sup>은 火病의 진단에 있어 不安 障礙가 많았으나, DSM-III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전형적인 경우가 적었으며, 명백하게 진단내리기가 애매하고 까다로웠으며, 특이한 표현이 많아서 여러가지 증상의 복합체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李<sup>148)</sup>은 火病은 현실 대응방법이 現實維持的, 消極的, 受容的이며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迂迴的, 間接的 方法을 쓰며 오히려 身體化 같은 自虐의 方法을 택하며, 주된 심리기제가 불완전한 억제로 특징지어지는 문화-관련 증후군 (Culture-related Syndrome)으로 간주된다. 閔<sup>149)</sup>은 火病은 개념이 복잡하므로 하나의 disease라기 보다는 illness이며, Culture-bound라기 보다는 Culture-related Syndrome이고, 우리 文化 概念으로 본다면, 증후학적 특징과 恨등 한국인의 심성과 관련된 특징적인 정신역동적 요소를 갖는 하나의 장애라 하였다. 恨을 소극적, 적극적 恨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이러한 한국인 고유의 전통적인 정서표현으로 알려진 恨은 火病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 (2) 火病의 原因

火病은 心因性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인들이 火病을 神經性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火病을 心因性인 神經症의 障礙로 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150)</sup>. 金<sup>151)</sup>은 火病의 原因을 고민, 불안, 화, 충격, 가정불화, 섭섭함 등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 가능한 心理的 要因으로, Lin<sup>152)</sup>은 忿怒(Anger)와 抑壓 내지 抑制된 忿怒의 力動的 原因으로 보았으며, 閔<sup>153)154)</sup>은 火病의 원인을 남편과 시부모관계 등 고통스러운 결혼생활과 가난과 고생, 사회적 좌절 그리고 개인의 성격특성 등에 의한 속상함, 억울함, 분함, 화남, 증오 등으로 대표되는 특징적 감정들이라고 하였고, 火病 또는 恨이 原因이 되는 과거 생활의 경험은 대개 공통적이었으나 恨은 보다 먼 과거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체념된 것이고, 火病은 비교적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 반복되고 있는 경험들에 의한 장애로 보인다고 양자 모두다 이런 원인이 되는 생활경험이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경제적 원인, 결혼, 타인에 의한 저항할 수 없는 억압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趙<sup>155)</sup>는 火는 一部 激烈한 感情이나 心氣의 興奮을 意味하며 억울된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神經性的인 火로 火病이 말미암는다고 하였다.

## (3) 火病의 病理機轉

李<sup>156)</sup>는 火病은 衝擊期-葛藤期-諦念期-症狀期의 四段階의 力動的인 過程을 밟으며 격한 분노를 抑制의 心理的 防禦機制로만 버티다가 현실속에서 문제점을 찾아 合理化하려는 서양인과는 달리, 諦念의 心理機制로 자기의 不幸을 超自然에 投射함으로써 火를 沖化시켜서 身體로 投射하는 身體火 경향이 현저하다고 하였

145) 민성길 : 火病(火病)과 恨(恨), 大韓醫學協會誌, p. 1195, 1196.  
146) 민성길 외 2名 : 정신과 의사 및 한의사들의 火病에 대한 개념, 神經精神醫學, p. 153.  
147) 이시형 외 5名 : 火病의 임상연구(II) - 분노 반응으로서의 火病 -, 高醫, p. 149.  
148) 이시형 외 2名 : 울화병으로서의 火病 형성기전, 高醫, p. 156.  
149) 민성길 외 2名 : 火病에 대한 일 역학적 연구, 神經精神醫學, pp. 872-873.

150) 민성길 외 2名 : 정신과 의사 및 한의사들의 火病에 대한 개념, 神經精神醫學, p. 152, 153.  
151) 김용식 외 7名 : 농촌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지식 및 견해, 神經精神醫學, p. 368, 374.  
152) Keh-Ming Lin : Hwa-Byung, Am J Psychiatry 140 : 105-107, 1983.  
153) 민성길 : 火病의 개념에 대한 연구, 神經精神醫學, p. 614.  
154) 민성길 : 火病(火病)과 恨(恨), 大韓醫學協會誌, p. 1197.  
155) 조흥건 : 스트레스病과 火病의 韓方治療, p. 95.  
156) 이시형 : 火病에 대한 연구, 高麗病院, pp. 66-68.

으며, 閔<sup>157)</sup>은 火病이 외적요인에 의한 의식적 감정반응들이 불완전하게 抑制되어 適應障礙가 생기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며 불완전한 抑制 때문에 일부 의식하고 있는 충동적 감정반응과 일부 身體化된 증상이 하나의 未分化된 상태로 만성적 경과를 거치게 되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불안에서 우울로 변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李<sup>158)</sup>은 火病의 원인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나 심리적 처리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1)남의 탓인 경우는 체념이 어렵고, 초기 충격기에는 火氣가 우세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鬱氣가 우세해지며 간헐적인 화기폭발이 계속되고, 2)내 탓인 경우에는 초기부터 鬱氣가 우세하게 작용하며, 3)팔자 탓인 경우에는 체념이 빠르고 용이하며 초기부터 鬱氣가 우세하다고 하였고, 결국 火氣와 鬱氣는 서로 혼재된 가운데 火病의 경과시기에 따라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표현된다고 율화병의 形成 機轉을 설명하였다.

#### (4) 火病의 症狀

金<sup>159)</sup>은 外感熱病에서 多現하는 火盛의 症狀를 實火로, 陰虛와 陽虛로 오는 慢性 消耗性疾患 등을 虛火로 區分하여 初期엔 不安症이 많고 진행됨에 따라 憂鬱症이 많았으며 症狀는 多樣해 憂鬱症, 凡不安障礙, 恐慌, 身體化 障礙 등으로 보았다. Lin<sup>160)</sup>은 epigastric mass, 신체화 증상, 공황발작, 우울증상을 主訴로 하는 임상양상을 보이며 抗憂鬱劑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閔<sup>161)</sup>은 정신과 의사들은 신체적 症狀로 가슴의 치밀어오름, 가슴답답함, 열기, 목가슴의 덩어리, 심계항진 등을, 정신증상으로 화, 분노, 우울, 비관, 허무감 등 우울증을 특징적으로 본 반면에 韓醫師들은 火病을 정신과 신체의 복합적 질환으로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

에, 憂鬱症候群보다 화, 분노, 신경질, 짜증, 걱정과 불안을 중요시 하였고, 불(火)은 한의학적 특수 개념과 연관되며, 위로 오르는 속성을 나타내므로 火의 症狀를 心熱, 面赤, 心中煩熱, 睡眠不安, 怔忡不安, 眩暈頭痛, 躁急易怒, 狂躁不安, 煩渴, 舌生瘡, 便秘, 惡心煩熱 등으로 말했다. 閔<sup>162)</sup>은 火病의 상태는 불(火)의 역동성과 그 부분적 억압상태를 상징화하므로 火病의 症狀는 우울, 불안, 불면, 소화장애, 두통, 신체통증 등 일반적 신경증적인 症狀들 以外에, 특징적으로 답답함, 열기, 입마름, 치밀어 오름, 심계항진, 목가슴의 덩어리 뭉침, 한숨, 땀 처나가고 싶음 등 火病 특유의 증상과 illness behavior로서의 하소연 많음 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몸의 열기, 답답함, 치밀어 오름, 덩어리 뭉침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특징적 4대 증상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火病은 한국인 고유의 전통적인 정서표현으로 알려진 恨과 관련이 깊으며 따라서 火病은 한국의 문화관련 증후군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閔<sup>163)</sup>은 恨과 火病은 감정반응에 있어서 억울하게 분함, 불안, 불만, 신경질, 짜증 등은 공통적이었으나, 火病은 충격, 분노, 증오, 속상함, 걱정, 조심 등 즉각적 반응이 보다 많고 恨은 허무, 후회, 고독, 열등감 등 장기적 억제의 결과로 상대적인 점이 많다고 하였다.

#### IV. 考 察

한의학에서 火는 少火, 君火, 相火, 命門火, 眞陰, 眞陽, 陰火, 陽火, 虛火, 實火, 臟腑之火, 五志之火, 六淫之火 등으로 命名되어져 왔으며<sup>164)</sup>, 運氣의, 生理的, 病因·病理的 火로 大別할 수 있었다<sup>165)</sup>. 時代的으로 살펴 보면 內經時代에서는 六淫의 火로 運氣의·外因의 火였고<sup>166)</sup>, 金·元時代에 劉<sup>167)</sup>는 火·熱을 重視하

157) 민성길 : 火病의 개념에 대한 연구, 神經精神醫學, pp. 613~614.  
158) 이시형 외 2名 : 율화병으로서의 火病 형성기전, 高醫, pp. 152~156.  
159) 金珍泰 : 火病에 대한 東醫學的 고찰,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pp. 82~83.  
160) Keh-Ming Lin : Hwa-Byung, Am J Psychiatry 140 : 105~107, 1983.  
161) 민성길 외 2名 : 정신과 의사 및 한의사들의 火病에 대한 개념, 神經精神醫學, p. 151, 152.

162) 민성길 : 火病의 개념에 대한 연구, 神經精神醫學, pp. 612~613.  
163) 민성길 : 火病(火病)과 恨(恨), 大韓醫學協會誌, pp. 1193~1197.  
164) 章眞如 : 風火痰瘀論, p. 45.  
165) 이문재·이상일 : 화의 개념에 대한 동양의학적 고찰, 동양의학, pp. 21~22.  
166) 洪元植 :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p. 41, 43, 375, 378, 381, 474, 499.  
167) 劉河間 : 劉河間三六書, p. 253, 269, 287, 297, 306, 307.

는 主火論을 主張하며 火를 外感 實火로 認識하였고, 張<sup>168</sup>)은 五志之火를, 李<sup>169</sup>)는 元氣不足으로 因한 內傷 陰火를, 朱<sup>170</sup>)는 陰精不足으로 因한 相火를 重視하며, 火를 內因의 火로 認識하였고, 明代에 張<sup>171</sup>)은 六淫實火 보다는 內傷虛火가 많다 하였고, 李<sup>172</sup>)는 飲食傷으로 因한 火를 말하였고, 清代에 唐<sup>173</sup>)은 血病이 곧 火病이라고 하는 등 火의 一般의인 概念에 대해서 時代別, 醫家別로 混用되어 使用되어져 왔다.

전반적으로 볼 때 火는 水·火의 陰陽五行의 火에서 君火와 相火의 生理·病理의 火로, “內傷火多 外感火少”<sup>174</sup>)라 하여 外因의인 火(外火)에서 內因의인 火(內火)로 變遷해왔다고 볼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內傷火에 속하는 五志之火가 歷代 醫家들에 의해 많이 舉論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火는 生理의 正常 體溫을 뜻하며, 生命活動의 原動力이라 볼 수 있으며, 病理의 外感六淫의 炎症이며, 各種 機能이 過度하게 亢進된 상태이며, 情緒의 精神의인 興奮이라 볼 수 있으며, 鄭<sup>175</sup>)이 말한 火의 개념과 一脈相通한다 할 수 있겠다.

특히 黃<sup>176</sup>)은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諸熱 瘕瘕 皆屬於火”, “諸躁狂越 皆屬於火”라 하여 火·熱은 能히 神明을 擾亂시켜 神志昏瞶, 精神狂躁 등을 發하므로 火가 傷神의 原因이 될 수 있어 精神病系統이나 모든 心因性疾患의 重要한 原因이 될 수 있다 하였으니, 精神의 葛藤으로 因한 五志之火가 內因의 火中 제일 重要하다 볼 수 있겠다.

病因으로서의 火로 田<sup>177</sup>)은 『中醫內傷火病學』에서 外感六淫悉能化火, 五志過動無不生火, 勞逸過度而生火, 飲食所傷而生火, 痰瘀生火 등이 있다고 하였다. 六淫之火를 劉<sup>178</sup>)는 六氣가 대다수 火熱과 兼化되거나 轉化되

어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였고, 五志之火를 李<sup>179</sup>)는 忿怒悲思恐懼가 모두 元氣를 損傷시켜 陰火를 致盛시킨다고 말하였고, 朱<sup>180</sup>)는 五臟에 各各 火가 있어 五志가 激動되면 그 火가 따라 일어난다 하였으며, 또한 章<sup>181</sup>)은 朱丹溪의 “氣有餘便是火”를 臟腑功能失調로 陽氣鬱結되어 火로 變化되는 肝鬱化火의 病理機轉으로 설명하여 五臟火는 五志之火와 가장 밀접하다고 하였다. 劉<sup>182</sup>)는 五志中 怒가 제일 많다고 하였다. 飲食之火를 李<sup>183</sup>)는 內傷生冷及飲食으로 因하여 陽氣가 막히면 鬱火가 생긴다고 하였고, 鄭<sup>184</sup>)은 음식이 胃腸에 留滯하여 醱酵腐敗하거나 大便이 順치 않을 때에 火가 발작하는 일이 있으며 더우기 消化作用이 抑塞 沈鬱되면 즉석에서 영향을 받아 消化不良을 일으키기 쉬우며 동시에 가슴에서 화가 떠오르기 때문에 慢性消化不良을 火라 하였다. 勞倦之火를 李<sup>185</sup>)는 勞役過度하면 元氣가 不足하여 陰火가 致盛한다 하였고, 李<sup>186</sup>)는 傷胃로 氣虛하여 火盛한다 하였다. 房勞之火를 朱<sup>187</sup>)는 情慾을 함부로 하면 相火가 致盛한다 하였다. 痰之火를 朱<sup>188</sup>)는 “熱生痰而痰生熱”이라 하여 痰火를 설명하였고, 章<sup>189</sup>)은 脾虛하면 生濕, 生痰하여 因痰致熱한다 하였다. 瘀血之火를 唐<sup>190</sup>)은 瘀血이 營衛, 臟腑, 經絡에 있으면 瘀血에 火가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田<sup>191</sup>)은 痰瘀가 氣血의 正常 運行을 阻碍하면 氣血鬱滯되어 能히 生火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六淫, 五志, 飲食, 勞倦, 房勞, 痰, 瘀血 등은 모두 火를 만들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나 인체 내부의

168) 張子和: 儒門事親校注, p. 95, 96, 126, 182, 183, 189, 191.

169) 大田大學校 第5期 卒業準備委員會: 東垣脾胃論譯釋, p. 87, 134, 135, 151.

170) 大田大學校 第7期 卒業準備委員會: 譯釋 丹溪醫論 格致餘論·局方發揮, p. 14, 16, 116, 117, 118.

171) 張景岳: 景岳全書, p. 35, 60, 61, pp. 314~317.

172) 李 梴: 編註醫學入門, pp. 320~322.

173) 唐宗海: 血證論, p. 3, 5.

174) 李 梴: 編註醫學入門, p. 321.

175) 鄭遇悅: 韓方病理學(各論), p. 85.

176) 黃義完·金知赫: 東醫精神醫學, pp. 157~159.

177) 田合祿: 中醫內傷火病學, pp. 81~86.

178)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p. 287, 297, 306, 307.

179) 大田大學校 第5期 卒業準備委員會: 東垣脾胃論譯釋, pp. 134~135.

180) 大田大學校 第7期 卒業準備委員會: 譯釋 丹溪醫論 格致餘論·局方發揮, p. 162.

181) 章眞如: 風火痰瘀論, p. 45, 52, 53.

182)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 注釋本, p. 140.

183) 李 梴: 編註醫學入門, p. 321.

184) 鄭遇悅: 韓方病理學, pp. 96~97.

185) 李東垣 外 五名: 東垣十種醫書中 內外傷辨惑論, p. 36.

186) 李 梴: 編註醫學入門, p. 321.

187) 大田大學校 第7期 卒業準備委員會: 譯釋 丹溪醫論 格致餘論·局方發揮, p. 13, 225.

188) 朱丹溪: 丹溪心法附餘, p. 334, 338, 359, 360.

189) 章眞如: 風火痰瘀論, p. 81, 92, 93.

190) 唐宗海: 血證論, pp. 117~119.

191) 田合祿: 中醫內傷火病學, p. 86.

상태에 따라 火는 발생될 수 있으며, 火는 인체의 臟腑, 氣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火証을 張<sup>192)</sup>은 火에 대한 虛實의 症狀으로, 林<sup>193)</sup>은 外因과 內因의 病因으로, 章<sup>194)</sup>은 熱證이 火化한 것까지 包括하여 火로 因한 疾病으로 定義하면서 洋方病名과 관련시켜 말하였는데 火証은 炎症性 疾患을 포함한 病理的인 의미가 더 강조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으며, 역대 의가들이 火証을 언급했던 것이 적은 것으로 보아 火証을 火에 概念안에 파악하려는 것 같다.

火病은 우리나라에서 疔病, 癰疽, 瘰癧 등으로 名稱되기도 하였는데<sup>195)</sup>196) 서양에서 神經性, 心因性 疾患이라 말한 것처럼<sup>197)</sup>198) 대다수의 原因이 가정생활의 갈등이나 경제적 손실, 가난 그리고 자신의 성격적 결함 등에 의한 불안, 좌절, 억울, 화, 분노 등의 여러 부정적 감정들인 면에서 보면<sup>199)</sup> 한의학적으로 五志之火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火病은 “Anger syndrome”<sup>200)</sup>이라 하여 특징적인 原因이 있거나 感情 등에 의해 발병한다고 하였는데 한의학적으로 肝鬱化火의 五臟火로 보면 공통점이 있으나, 六淫, 飮食, 勞傷, 房勞, 痰, 瘀血 등에 의해서도 火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한의학적인 火病이 더욱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火病의 病理機轉을 살펴보면, 李<sup>201)</sup>는 衝擊期-葛藤期-諦念期-症狀期의 力動的인 過程을 밝으며 현실속에서 문제점을 찾아 合理化하려는 서양인과는 달리, 諦念의 心理機制로 자기의 不幸을 超自然에 投射함으로써 火를 沖火시켜서 신체로 投射하는 身體化 傾向이 현저하고, 초기에는 不安症이 많고 진행됨에 따라 憂鬱症이 많다고 하였고, 또한 남의 탓, 내 탓, 팔자 탓으로 火病

의 원인을 나누어서 형성기전을 보면 화기와 울기는 서로 혼재된 가운데 火病의 경과시기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우세하게 표현된다고 하였는데<sup>202)</sup> 이는 한의학적 으로 肝鬱化火나 鬱久而化火의 病理機轉으로 說明할 수 수 있으며, 우리 民族 固有의 情緒인 恨과 같은 感情이 극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서 病理化하는 過程을 說明할 수 있다 하겠다.

火病의 症狀에 볼 때 精神科 醫師들은 精神과 身體의 특징으로 나눈 반면에 韓醫師들은 火라는 한의학적 특수 개념으로 위로 오르는 속성으로 연관시켜 말하였는데 火病이 진행됨에 따라 우울의 증상을 나타낸다는 점은<sup>203)</sup> 한의학적으로 張이 말한 實火보다는 虛火가 더 중요하다는 점과 질병이 대부분 實證에서 虛證으로 變換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相關性이 있다 하겠다.

火病은 心身症, 神經症, 憂鬱症 등으로 볼 수 있으며, 精神分裂症이나 癰疾 등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으며<sup>204)</sup>, 閔<sup>205)</sup>206)207)은 火란 억울, 불안, 분노, 화, 걱정, 낙심 등 다양한 감정과 신체증상의 복합체로서 이러한 감정을 오랫동안 의식적으로 억제, 누적된 것이 화이며, 밖으로는 火病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 감정은 恨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회심리적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火病은 Culture-bound라기 보다는 Culture-related Syndrome이며, 우리 문화 개념으로 본다면, 증후학적 특징과 恨등의 한국인 심성과 관련된 특징적인 정신역동적 요소를 갖는 하나의 장애임이 뚜렷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恨의 概念과 關聯된 情緒(感情反應)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첫째, 소극적 恨은 외부대상보다 자기에게 향한 감정으로 이는 결국 諦念으로 適應되며 情恨으로 남게 되고 주어진 상황안에서 슬픔으로 또는 화해와 사랑의 실천으로 승화 표현될 수 있고, 둘째, 적극적 恨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향한 것

192) 張景岳 : 景岳全書, p. 317.

193) 林珮琴 : 類證治裁, p. 60.

194) 章眞如 : 風火痰瘀論, p. 45, 46, pp. 63~74.

195) 金珍泰 : 火病에 대한 東醫學의 고찰,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p. 79.

196) 조흥진 : 스트레스病과 火病의 韓方治療, p. 98.

197) 민성길 : 火病의 개념에 대한 연구, 神經精神醫學, p. 611.

198) 민성길 외 2名 : 정신과 의사 및 한의사들의 火病에 대한 개념, 神經精神醫學, p. 152.

199) 민성길 외 2名 : 上揭書, p. 152.

200) 이시형 : 火病에 대한 연구, 高麗病院, p. 63.

201) 이시형 : 上揭書, pp. 66~68.

202) 이시형 외 2名 : 癰疽병으로서의 疔病 형성기전, 高醫, pp. 152~156.

203) 민성길 외 2名 : 정신과 의사 및 한의사들의 火病에 대한 개념, 神經精神醫學, pp. 151~152.

204) 조흥진 : 스트레스病과 火病의 韓方治療, pp. 95~96.

205) 민성길 외 3名 : 火病(火病)에 대한 임상적 연구, 大韓醫學協會誌, p. 196.

206) 민성길 외 2名 : 火病에 대한 일 역학적 연구, 神經精神醫學, p. 873.

207) 민성길 : 火病(火病)과 恨(恨), 大韓醫學協會誌, p. 1195.

으로恨이 극도로 누적될 때는 百年之恨, 徹天之恨이라고 하며, 怨, 怨恨 또는 冤이라고도 하는바, 이는 결국 복수, 권토중래, 변혁(개혁 또는 혁명)을 일으키며 해방과 정의실현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한국인 고유의 전통적인 정서표현으로 알려진 恨과 火病이 原因的 要因과 症狀面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火病은 원인이나 감정반응에 있어 역사적인 민족 고유의 정서인 恨과의 공통선상에 있다는 것과 시간적 경과에 따라 恨이 극복되지 않고 病理化한 것임을 시사할 수 있다 하였다. 또한 恨과 stress의 비교에서 stress는 경험 자체이며 반면 恨은 그러한 경험을 한국인이 다루고 느끼는 방식(how to handle)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火病과 恨과의 관련성은 民俗精神醫學 측면에서 본다면 큰 意義가 있다 할 수 있다.

火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 更年期症候群과 비교해 보면, 具 등(208)은 한의학에서 更年期는 節에 해당되며, 많은 변화를 발생시키고, 節과 節사이에는 현저한 변화가 보이므로 節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며, 更年期症候群은 火의 病理的인 症狀과 매우 일치한다고 하였는데 그가 言及한 것처럼 火病과 호발되는 年齡이 類似하고, 西醫學의 自律神經失調나 Hormone의 不均衡에 의하여 발생한다 하였는데, 金 등(209)이 女性은 生理的, 臟腑的, 經絡的, 疾病的 또는 心理的인 차원에서 男性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火病을 유발하기 쉬우며, 특히 閉經期에 衝任脈이 衰退하면 腎虛火動으로 肝氣를 衝動하여 肝氣鬱逆症이 되고, 장기간 지나면 陰血을 손상하고 五臟을 모두 손상하게 되어 火病의 양상을 많이 나타낸다고 말한 것을 보았을 때 火病과 更年期障礙는 서로 유관하다 볼 수 있겠다.

또한 火病을 stress와 비교해보면 趙(210)는 stress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문진표를 소개하면서, 그 중 「CMI stress 체크법」(211)이 火病의 진단에 많은 도움

을 주고 있고, CMI 검사결과 自律神經失調症, 神經症, 心神經 등으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는 모두 火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였고, 文 등(212)은 火는 stressor(外來的刺戟)가 될 수 있고, 이로 因한 機能亢進된 狀態나 結果(stress의 生理的 反應 및 病理的 反應)라 하였고, 情緒의 變動이 심할 때 또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난후 발생하는 火를, 결국 七情 stress에 의하여 발생한 諸火證을 민간에서는 火病이라 한다 하였다. 이는 五志之火의 肝鬱化火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관성을 찾을 수 있으며, 현대인들의 stress病을 七情과 無節制한 식사 습관으로 연관지어 본다면 stress病은 곧 火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火病은 內傷火熱之氣에 의한 것이며, 溫病은 相對的으로 外感六淫火熱之氣에 의한 것이며(213), 病因病理的 側面이 강하지만 現代 우리나라에서는 一般的으로 病名으로서의 性格이 强하다고 볼 수 있겠다.

以上을 綜合해보면 火란 生理的으로 正常 體溫이며, 生命活動의 原動力이며, 病理的으로 炎症狀態, 精神興奮, 自律神經 機能亢進을 뜻하며, 五志之火로 歸結시킬 수 있는 兩面性을 가진 것이며, 火證이란 火로 因한 炎症性 疾患을 뜻하며, 火病이란 한의학적으로 內傷火熱之病에 해당되며, 更年期를 前後로하여 對人關係로 因한 stress가 原因이 되어 나타나는 精神身體障礙라 할 수 있겠다.

## V. 結 論

火 및 火病에 대하여 文獻의 研究를 통해 各各의 一般的 概念과 病因·病理論的 側面에서의 意義를 究明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은 얻었다.

1. 火의 病理的 特性은 外感六淫과 內傷火熱로 인한 炎症狀態, 精神興奮, 自律神經 機能亢進을 意味한다.

관한 것을 2가지로 나누어 각각 5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12) 문중모외 2名 : stress와 화에 관한 동서의학적 고찰, 대한한방 내과학회지, p. 158, 1988.

213) 田合祿 : 中醫內傷火病學, p. 7.

208) 具炳壽·李鐘馨 : 火病에 對한 文獻의 小考,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p. 16.

209) 金鍾우·황의환 : 한의학에서 본 火病의 해석,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p. 10, 11, 12, 13.

210) 조흥건 : 스트레스病과 火病의 韓方治療, pp. 111~119.

211) 조흥건 : 上揭書, p. 115, 116. CMI : Cornell Medical Index라 하며, 코넬대학 의학부가 고안한 심리테스트로 신체와 정신에

2. 精神的 葛藤으로 인한 五志之火는 五臟之火로 歸結되며 肝鬱之火가 代表的인 臟腑之火로 생각된다.
3. 火로 因해 發病되는 火証은 炎症性疾患을 內包하며, 外火로 因한 實證의 病理상태를 意味한다고 思料된다.
4. 精神疾患으로서의 火病의 病理機轉은 우리 民族의 주된 情緒인 恨을 기초로 하며, 鬱久而化火의 過程으로 發生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火病은 更年期를 前後로 하여 對人關係로 因한 stress가 原因이 되어 나타나는 精神身體障礙라 생각되어 진다.

以上的 研究에서 火 및 火病에 對한 각각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었으나, 向後 火 및 火病의 臨床의 側面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調査, 研究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 參 考 文 獻

1. 章眞如 : 風火痰瘀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2. 鄭遇悅 : 韓方病理學, 全州, 三進社, 1988.
3. 洪元植 :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3.
4. 金琦顯·李泰浩 : '病機十九條에 考察', 東醫病理學會誌, 第4卷, 1989.
5. 朱丹溪 :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9.
6. 金珍泰 : 火病에 대한 東醫學의 高찰,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第3卷, 第1號, 1992.
7. 조흥건 : 스트레스病과 火病의 韓方治療, 서울, 열린책들, 1991.
8. 문충모·김지혁·황의완 : Stress와 화에 대한 동서의학적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第9卷, 第1號, 1988.
9. 具炳壽·李鐘馨 : 火病에 對한 文獻의 小考,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第4卷, 第1號, 1993.
10. 김용식·조수철·김이영·오석일·최택수·조두영·이부영·이정균 : 농촌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지식 및 견해-한국 농촌의 사회정신 의학적 연구(II)-, 神經精神醫學, 第14卷, 第4號, 1975.
11. 이시형 : 火病에 대한 연구, 高麗病院, 第1卷, 第2號, 1977.
12. 민성길 : 火病(火病)과 恨(恨), 大韓醫學協會誌, 第34卷, 第11號, 1991.
13. Keh-Ming Lin : Hwa-Byung : A Korean Culture-Bound Syndrome?, Am J Psychiatry 140 : 105~107, 1983.
14. 이문재·이상일 : 화에 개념에 대한 동양의학적 고찰, 東洋醫學, 通卷 第13號, 1979.
15. 王 冰 :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6. 許叔微 : 普濟本事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17. 嚴世芸 : 許叔微의脾腎觀, 上海中醫雜誌, 第2期, 1982.
18. 嚴用和 : 濟生方-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11,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9. 金完熙·崔遠永 : 臟腑辯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20. 李聰甫·劉炳凡 :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研究, 서울, 成輔社, 1985.
21. 劉河間 : 劉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22. 劉河間 : 素問玄機原病式 注釋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3. 張子和 : 儒門事親校注,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24. 宋隆燮 : 張從政의 生涯와 醫學思想, 東洋醫學, 第12卷, 第2號, 1986.
25. 李東垣 外 五名 : 東垣十種醫書中 內外傷辯惑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1.
26.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5期 卒業準備委員會 : 東垣脾胃論譯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27. 丁光迪 : 東垣學說論文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28.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第7期 卒業準備委員會 : 譯釋 丹溪醫論格致餘論·局方發揮, 서울, 大成文化社, 1993.
29. 楊 震 : 丹溪 相火學說에 對한 研究(上), 醫林, 第219號, 1966.
30. 楊 震 : 丹溪 相火學說에 對한 研究(下), 醫林, 第220號, 1966.
31. 禹元洪·鄭遇悅 : 火의 概念에 對한 時代的 考察 (—黃帝內經부터), 서울, 大星文化社, 1990.
32. 李 挺 :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2.
33. 張景岳 :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2.
34. 陳照甫 : 不因溫補廢寒涼, 上海中醫雜誌, 第12期, 1984.
35. 薛 己 : 薛氏醫案-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36. 虞天民 : 精校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37. 龔信贊 : 古今醫鑑,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38. 唐宗海 : 血證論, 台北, 力行書局有限公司, 1984.
39. 吳 謙 外 79名 : 醫宗金鑑 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3.
40. 陳士鐸 : 新編 石室秘錄, 서울, 大星文化社, 1993.
41. 陳士鐸 :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42. 程國彭 : 增批醫學心悟,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39.
43. 庵詵汪 :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44. 張 璐 :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45. 張錫純 : 醫學衷中參西錄 中,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46. 金永勳 :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1990.
47. 朴贊國 : 病因病機學, 서울, 傳統醫學研究所, 1992.
48. 杜鎬京 : 東醫腎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9.
49. 蔡仁植 : 傷寒論譯詮, 서울, 高文社, 1985.
50. 朱丹溪 : 金匱鉤玄-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51. 李 挺 : 編註醫學入門 (下), 서울, 南山堂, 1985.
52. 楊向輝 : 金匱要略注釋, 台北, 中國醫藥學院, 1986.
53. 王新華 : 中醫歷代醫論選(周學海 : 讀醫隨筆), 서울, 一中社, 1992.
54. 林珮琴 :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1980.
55. 李東植 : 韓國의 傳統文化속에 있는 精神健康에 關한 知慧에 對한 小考 -夜尿症과 아우타는 것-, 神經精神醫學, 第7卷, 第2號, 1968.
56. 李符永 : 韓國民間의 精神病觀과 그 治療(I), 神經精神醫學, 第9卷, 第1號, 1970.
57. 金光日·元鎬澤 : 韓國民間精神醫學(I)-農村의 精神疾患 概念 및 治療에 關한 現地 調查-, 神經精神醫學, 第11卷, 第2號, 1972.
58. 민성길·김진학 : 보길도에서의 瘧病에 關한 연구, 神經精神醫學, 第25卷, 第3號, 1986.
59. 田合祿 : 中醫內傷火病學,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2.
60. 金碩鎭 : 大山周易講解 下經, 서울, 大有, 1993.
61. 吳洪根 : 의미척도 方法에 의한 정신의학적 개념에 對한 조사 研究, 神經精神醫學, 第18卷, 第2號, 1979.
62. 민성길·이만홍·신정호·박목희·김만권·이호영 : 瘧病(火病)에 對한 診斷의 研究, 大韓醫學協會誌, 第29卷, 第6號, 1986.
63. 민성길·소은희·변용욱 : 정신과 의사 및 한의사들의 瘧病에 對한 개념, 神經精神醫學, 第28卷, 第1號, 1989.
64. 이시형·오강섭·조소연·배석주·이성희·김영섭 : 瘧病의 임상연구(II) -분노 반응으로서의 瘧病-, 高醫, 第12卷, 1989.
65. 이시형·조소연·이성희 : 癰疽病으로서의 瘧病 형성기전, 高醫, 第12卷, 1989.
66. 민성길·남궁기·이호영 : 瘧病에 對한 일 역학적 研究, 神經精神醫學, 第29卷, 第4號, 1990.
67. 민성길 : 瘧病의 概念에 對한 研究, 神經精神醫學, 第28卷, 第4號, 1989.
68. 민성길·이만홍·강홍조·이호영 : 瘧病(火病)에 對한 임상적연구, 大韓醫學協會誌, 第30卷, 第2號, 1987.

69. 黃義完 · 金知赫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1987.
70. 김종우 · 황의완 : 한의학에서 본 鬱病의 해석,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第5卷, 第1號, 1994.

= ABSTRACT =

A bibliographic study about  
the meaning of Hwa and Hwa-byung

Jing Sung Park O.M.D.,  
Yeong Soo Lyu O.M.D.

Dep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 Kwang University

I got the following result from the bibliographic study about the meaning of Hwa(火) and Hwa-byung(火病) at the concept and the aspect of pathological and etiological fac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wa(火) mean the inflamed state, the excited mental condition and perinervous hyperfunction caused by exopathy produced by any of the six external etiological factors(外感六淫) and Hwa caused by interior injury(內傷火熱).
2. Hwa caused by the fire emotions(五志之火);

anger, gladness, contemplation, sadness, fear by mental complications brings to Hwa caused by the five viscera(五臟之火) and Hwa caused by the stagnation of the liver - energy (肝鬱之火) is the representative Hwa caused by the five viscera and the six hollow organs (臟腑之火).

3. A symptom caused by a pathogenic Hwa(火証) is understood in a pathological sense involved an inflamed disease and is considered as a pathological state of excess syndrome(實證) caused by exterior Hwa(外火).
4. The pathologic process of Hwa-byung(火病) as the mental disease is based upon our people's emotion ; Han(恨) to be pathologized without being overcome and can be considered as the process of Hwa caused by long-term(鬱久而火化).
5. Hwa-byung(火病) means a psychosomatic disorder resulting from stress reaction caused by personal relations in the climacterium.

From the above mentioned study, the meaning of Hwa(火) and Hwa-byung(火病) is set theoretically and it also needs to be maintained researching and studying about Hwa-byung(火病) consistantly.